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략 새로 짚는다

JDC, 성과 진단·성찰 통해 '제주형 전략' 수립 추진
기본구상·실행방안 비롯 미래비전 등 내용 담길 듯
용역 수행 과정서 시민참여 논의... 공감대 형성키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JDC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진단·성찰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 진단 및 성찰 ▷국제자유도시 관련 정책 변화 및 현안 이슈 도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및 목표 설정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수립 ▷국제

자유도시 추진 구조 및 조직 분석 ▷국제자유도시 전담기구(JDC)의 미래비전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JDC는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업지시서 구성 및 용역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절차 등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단계별 전문가 자문 시행 및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도내 각계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현실적 타당성을 높인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 및 시민참여 자문단과의 다면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해 12월 19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국토부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제주도가 합의의 수준으로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 제140조 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환경계획, 경제계획, 상수도계획 등 제주도내 모든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각종 개발사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2011년)이 수립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제주국제자유도시시는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2년 제2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8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한국과 세네갈전의 경기. 승부차기 접전 끝에 4강 진출을 확정짓는 U-20 대표팀 선수들이 한국 응원단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미래 '4강 신화' 다시 썼다

U-20 대표팀, 월드컵 8강서
연장 3-3 무승부 후 3-2 승
승부차기 끝에 세네갈 격파

1983년 이후 36년만 4강 진출
12일 에콰도르와 결승행 다름

한국 축구의 리브 대극전사들이 36년 묵은 4강 진출 꿈을 이뤄냈다.

한국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3골에 모두 관여한 대표팀 막내 이강인(발렌시아)의 원맨쇼에 힘입어 아프리카의 강호 세네갈을 상대로 연장

점전 후 승부차기 승리로 드라마를 연출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9일(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U-20 월드컵 8강에서 1골 2도움을 올린 이강인(발렌시아)의 활약 속에 연장 접전 3-3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겼다.

한국은 2-2로 맞선 승부차기에서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선 오세훈(아산)이 상대 골키퍼 파울로 재차 찬 끝에 골망을 흔든 반면 세네갈의 마지막 키커의 공이 공중으로 뜨면서 극적인 승부차기 승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의 U-20 월드컵의 전신인 1983

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4강에 오른 이후 무려 36년만이자 역대 두 번째로 4강 신화를 재현했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이 속한 이른바 '죽음의 조' F조에서 2승 1패, 조 2위로 당당히 16강에 오른 뒤 '속적' 일본을 1-0으로 돌려세우고 8강에 오른데 이어 세네갈까지 꺾고 4강에 진출해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까지 살렸다.

우리나라는 세네갈 U-20 대표팀과 상대전적에서도 1승 1무의 우위를 점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12일 오전 3시 30분 루블린에서 8강 상대 미국을 2-1로 꺾은 에콰도르와 결승 진출 티켓을 다툰다. 연합뉴스

“올 여름, 평년보다 더 더울수도” 폭염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道

독거노인에 냉방용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서기를 맞아 폭염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

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에서는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폭염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제주지역 내 독거노인(5325명)과 노인일자리 참여자(9367명)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569개소)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우선 독거노인(5325명)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관리, 폭염시 행동 요령 등을 사전 안내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전화·방문 등을 통한 안전 확인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중 공동 모금회 차상위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를 제외한 3800여명에게는 냉방비(8만 5000원/1인) 지원, 민간기업 및 단

체 후원을 통한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해 보다 시원한 여름철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9367명)에 대해서도 휴식기 기간에는 활동시간 단축(30~20시간)과 무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야외 활동 자제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야외작업 사업단의 경우 오전 중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조정하고 폭염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안내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5월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맥내장비(1144대)에 대해 전수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더불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에어컨 점검 등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되는 경로당의 경우 냉방기 가동여부, 연장운영(오전 9시~오후 6시) 및 휴일 개방 등 운영 실태 확인 등을 상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8월 31일까지)
문의 : 1588-0079(7번)

공공형 어린이집 53곳 재선정... 인증 3년 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 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53곳이 재선정됐다.

제주도는 최근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53개소

를 재선정해 민고 말기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재선정된 53개 공공형어린이집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전문적인 보육교직원 관리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재평가해

선정했다. 이들 어린이집은 향후 3년간 인증이 유효하고 매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도내에 총 118개소(제주시 94, 서귀포시 24)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형어린이집에 월 129만원에서 158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표성준기자

제11회 사라니숲 에코힐링체험 행사 성공개최를 축하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차고지증명제가 현재 제주도 동지역에 한해 중·대형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중·대형 전기차 포함) 시행됩니다.
(단,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상차종	차량분류기준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소형제한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제한 초과, 길이 9m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m 이상
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제1종저공해자동차	2019. 7. 1일부터 중·대형 전기자동차, 연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단, 소형제한 차량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자동차 임.	

신청 절차

신청·접수

차고지현장확인

증명서 발급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 시행기준일 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 (시행기준일: 대형차 - 2007년 2월 1일, 중형차 - 2017년 1월 1일)

문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2~32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